

창세기(7)

14 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다른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소망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소망된 믿음 안에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 장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는 경륜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뜻인데 이것은 때가 차는 경륜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도 하나님께서 무한정 오랫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6 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6 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일곱이란 수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럭키 세븐이다. 세븐이란 숫자는 럭키하다. 심지어는 카지노에 가도 7 자가 나오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다시 창세기로 왔는데 결국은 다 뜻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 장을 보면 일곱이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23 장 26 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십일은 속제일입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지니라.” 또 33 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십오일은 주께 칠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일곱째 달에 오시는 것이 틀림없죠.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6 절을 보면, “칠일 동안은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39 절 보면,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가나안 땅이죠) 일곱째 달의 십오 일에는 또한 너희는 칠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40 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뺨뺨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41 절, “너희는 연중 칠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42 절,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43 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44 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이 명절들 즉 율법에 나오는 명절들은 다 그림자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이시고, 오순절은 성령님, 곧 그리스도 영이 오시는 오순절의 그림자요.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된 몸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실제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의 그림자입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초막에 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곱을 통해서 항상 움직이십니다. 레위기서 25 장 8 절을 보시면 안식년이 나오죠. “8 너는 내게 일곱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칠년이 일곱 번이요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사십구 년이니라. 9 너는 일곱째 달 십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10 너희는 오십 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선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될지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일곱 번째가 거룩하다. 일곱 번째는 쉰다. 주님께서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는 쉬셨다. 일곱 번째 해도 쉬었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의 천년에 주님께서 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도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 주시느라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쉬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체사장으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서 내가 죄지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가 뭘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인 거예요. 죄가 들어온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못 쉬는 판인데 온 세상이 죄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때가 왔다. 때가 찬 경륜이 아니면 하나님도 안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도 고통만 당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실 때 바로 태양이 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신 이후에 이 땅은 바로 밤이라 했어요. 이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다시 의의 태양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성도들은 달로 표현했죠. 우리는 달처럼 곱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성도들을 달로 표현해 달처럼 곱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달을 볼 때 처음에 초순에는 초승달로 작아서 조그맣게 보이다가 점점 커져 보름이 되면 환한 만월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볼 때 좋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작아져서 그믐달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잘 모르다가 서서히 빛을 받으면서 크게 빛을 비추다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맞이하는 것이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으며 도는데 한 달의 주기, 음력이 한 달에 30 일 아닙니까? 딱 보름이 15 일이고.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80 이라면 40 에 확 비추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우린 달과 같이 여성으로 비유되었고 태양은 항상 남성으로 사용되었나 봅니다. 시편 119 편에 보면 태양을 신랑이라 했어요. 태양을 신랑 방 장막에 있는 신랑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면 물들에서 생명체가 나오는데, 아~ 지금까지 왜 인간들이 달을 정복하려 했을까? 달이 너무나 멋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는 이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태양이 질 때 하늘이 붉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멋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피로 물드는 이 세상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인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역시 바다에 가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로 물들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달은 태양이 도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자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지요. 이것은 지구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는 거꾸로 갑니다. 그러나 달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자연 계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 절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4 천 년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피해 가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막 오시라고 할 것이니까 일부러 병든 것을 아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시며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니깐 한 나흘 정도 지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럼 잠들었나? 갔더니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며 벌써 나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불렀지요. 아마 인류 역사 4 천 년 동안은 주님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 송장 같은 세상이었지만, 주님이 마침내 넷째 날이 지나고 4 천 년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시작되어 오실 때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뭘니까? 바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 가족들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때 그냥 무덤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면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겠지만 나사로만 살리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었죠. 나사로처럼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20 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첫 번째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을 보고 명령하니깐 물에서 생겼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 제일 먼저 출생은 물에서 납니다.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은 육신적인 물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대개들 ‘물은 말씀이다.’라고 해요. 물은 물이지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말했더니, 어떤 여 집사님이 하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발사가 집사님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면도하던 자매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물이예요? 말씀이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네, 이 목사님 참!” 그러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아, 자매님, 물이 물이지 어디 말씀입니까? 자매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 양수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끝까지 믿는 요즘 사람들의 심경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물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은 있지만 물이 말씀은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째 날이 다 지나고 다섯째 날에 온 것은 4천년이 지나고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며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 2 에 하나를 더한 일곱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자세하게 상고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 돈 버는 책들은 자세하게 보고 의사들 육신 병 고치는 책들은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러면서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셨어요. 이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생명을 얻고자 원치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여기 말씀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먹고 이 말씀의 물로 씻김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화장품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 화장품은 더덕더덕 칠해서 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화장품은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씻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겉까지 깨끗하게 씻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추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물량주의를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다수를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바로 달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 다시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또 돌이켜보게 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마지막 책을 공부하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상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린바 되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씻김 받아서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걸 사람은 다 없어지고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보며 말씀으로 씻김 받으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디 나가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